



“오사~
우리나라 목판
너무 아름다워요”

의왕 청계사 목판 인쇄 작업 현장

“와 옛날에는 경전을 이렇게 인쇄 했네요!”
 “우리나라 목판 인쇄물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선시대에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목판 인쇄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과 청계사(주지 성행)가 공동으로 1월 3일 의왕시 청계사에서 경기도유형문화재 135호 청계사 목판을 전통방식으로 인쇄하는 작업을 공개한 자리에서다.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열린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의 집전으로 목판인출을 부처님 전에 알리는 법회가 열렸다. 30분 동안의 의식이 끝난 뒤 성행 스님은 인쇄 작업이 공개되는 강당으로 <묘법연화경> 경판을 이운했다.

성행 스님이 시연을 시작하자,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발 터졌고 그 틈 사이로 불자들이 신기한 듯 머리를 빼곡히 내밀며 경판 인쇄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현장에 있던 김경숙 보살(45)은 “요즘은 인쇄술이 너무 발달돼 책 한 권 만드는데도 몇 시간이 안 걸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과정을 거쳐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경판에 대한 외경심이 든다”며 “복사본이라도 경전을 대할 때마다 앞으로 염속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 같다”고 경판 인쇄 작업을 본 소감을 피력했다.

또다른 참가자인 가정법회 신행모임 여여회 이란 회장은 “신행모임에서 <법화경>을 15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다음 주 회장에 앞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 <법화경> 경판을 진경하러 왔다”며 “복사본을 가지고 그동안 편하게 공부했는데 실제로

목판본에서 인쇄돼 나오는 <법화경>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열하게 공부했던 옛 선지식들의 향훈이 물씬 느껴져 감동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에 인쇄된 경판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비롯, 18종 466판이다. 이는 양면으로 합산하면 932면(일부는 4면)으로 모두 35질인 인출(印出·책판에 박아냄)된다. 여기에는 불교강원교과목(선요, 도서, 절요, 서장 등)과 불교의식 문헌(예수시왕

기록 문화재 활성화 연구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시연 <묘법연화경> 포함 18종 466판 등 총 35질 인출

삼절경, 오대진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제외계 등),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풍산범어, 천자문, 천지팔방신주경판 등이 포함돼 있다.

청계사 경판은 평균 가로 50cm×세로 21cm 규격으로 양면에 각자(刻字)돼 있다. 특히 이 경판은 조선 후기(17세기~18세기) 목판으로 당시의 인쇄 문화와 불교문화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이번 인출에는 국산 탁나무로 만든 최고급 전주한지 4만장(가로 60cm×세로 50cm)과 먹물 60kg이 들었고 경판세척을 위해 국산 천연염 40kg이 사용됐다.

인출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경판세정’에서는

막으로 경판에 분류목목을 한지로 부착한다.

경기문화연구원 윤여빈 전통문화실 전문위원은 “먹을 목판에 칠해 손잡이를 잡고 한지에 차례로 찍어내는 과정인 ‘인출’은 먹물의 농담과 칠하는 양을 판단해야하는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과정이 요구된다”며 “인출본은 반으로 접어서 제책을 하며 금석문의 탁본과는 큰 차이가 있을 만큼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이번 경판 인쇄 작업은 조선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청계사 경판인출을 통해 기록 문화재의 원본자료를 확보, 기록문화재 연구를 활성화하고 근대 한국 선불교의 산실인 청계사 일원 문화재 보호에 기록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청계사는 통일신라 때 장건린 전통사찰로 고려 충렬왕 때인 1294년 평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사재를 들여 중창했다.

이 절에는 경기문화재자료 6호(3동의 요사)와 10채의 건물, 국보 11-7호 동종(1701년 주조, 높이 115cm·지름 71cm), 경기 유형문화재 135호(경판) 등 각종 문화재가 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변이삼경
지장보살본원경요동
관세음보살본원경
묘법연화경 요동

**복상불소영
장량장천
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역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본원경)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올마니반
매출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단주
크기 :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역주는 가격이 저렴하고
배판용 이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
이 뿜어져 나와 예뻐서에도 사용했습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한입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덕
과 배판을 이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
이 뿜어져 나와 예뻐서에도 사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
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영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칙의 효능 **“얇은 열”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의 효능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확
용하고 편안하게 없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안,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배가 낫거나 손발이차차분 ◆오심증,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악화신분에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량 인정인증, LIG 배선보형 기입
전지파 장애실험,
전지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심안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치기만 해도 온열복대
를 건강하게 하리들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총
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사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
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
들 온열복대**는 속품(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칙의 효능 “열
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치기온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은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